



왼쪽부터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서순희 평택저축은행 대표, 노재기 청주저축은행 대표.

### COMPANY HISTORY

#### 평택저축은행

1983년 상호신용금고 영업 인가  
2003년 서순희 대표이사 취임

#### IBK저축은행

2011년 금융위원회 영업 인가  
2017년 김성미 대표이사 취임

#### 청주저축은행

1975년 (주)산흥상호신용금고 설립 인가 신청  
2014년 노재기 대표이사 취임

## 서순희 평택저축은행 대표·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노재기 청주저축은행 대표 여성 CEO 3인의 謹賀新年

서순희 평택저축은행 대표는 '변화무쌍'했던 지난해를 넘어 예측 가능한 2019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는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를 되새기며 각자의 역량을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노재기 청주저축은행 대표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즐거움·성장의トライ앵글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여성 최고경영자(CEO) 3인을 만나 2019년의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서순희 평택저축은행 대표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로 변화무쌍에 대응합니다”

2018년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변화무쌍(變化無雙)'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우리 업계가 마주한 변화도 있지만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다. 미·중 무역 전쟁, 대북 관계,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2019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그에 맞물려 저축은행 경영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회사는 물론 업계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늘 그렇듯이 변화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변화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연적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하지만 2019년에 우리가 겪을 변화는 아무쪼록 예측 가능한 것이기를 바란다. 불확실성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원칙과 정의가 통용되는 변화를 희망한다. 바르게 산 사람이 인정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바라본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회복해 예전처럼 활기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오른쪽 무릎 연골판이 찢어지면서 5개월이나 출근하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주역의 64괘 가운데 가장 마지막은 미완의 괘라고 한다. '어린 여우가 강을 다 건넌 때 그만 꼬리를 적시고 말았으니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인데,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느꼈을 때 하나의 실패가 있어 우리는 다음의 과제에 다시 도전하게 된다. 작은 실패 덕에 전체 국면이 완결이 아닌 미완에 머무르고 그 미완이 더 높은 단계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다.

생각해 보면 무릎을 다친 것은 내게 건강의 소중함과 주변인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건강에 자만하지



서순희 평택저축은행 대표

2019년에 우리가 겪을 변화는 아무쪼록 예측 가능한 것이기를 바란다. 바르게 산 사람이 인정받고 열심히 일한 자가 부자 되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바라본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내 살길을 도모한 이후에야**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만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약점부터 극복해야 할 것이다.**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않고 조심함으로써 앞으로 더 큰 건강상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삶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완벽은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새옹지마의 지혜를 발휘해 보자.

**김성미 IBK저축은행 대표**  
**“우리의 역량을 키우면 더욱 멋진 조직이 탄생할 것”**

지난해 겪은 많은 일들은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시각을 만들어 줬을 것이다. 나 역시 지난해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모두 지혜의 소산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은 나 자신과 우리 IBK저축은행에 튼튼한 체력을 배양하는 한 해가 되기를, 그 결과 더욱 건강한 체질로 변화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바둑에는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자신이 산 다음에 상대를 잡으러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 살길을 도모한 이후에야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경쟁력 있는 개인과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만사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내부의 약점부터 극복해야 할 것이다.

IBK저축은행의 대표로 부임한 후 채 2년이 되지 못했지만 그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접했다.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시각, 금융업계의 시각, 고객의 시각, 우리 내부의 시각이 그것이다. 그 시각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각자의 평가가 담겨 있는데 나는 그 시각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저축은행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한 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그 역할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 업계가 금융업 규모면에서의 장악력, 고객 서비스 면에서의 강점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의 약점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극복하고 그 후 업계에서도 그에 맞는 입지를 키울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 ‘아생연후살타’의 자세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얼마 전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며 다수의 사람들을 이끄는 소수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CEO의 역할에 대한 중요함과 그 책임에 대한 무게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수의 힘만으로는 결코 조직을 성장·발전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업계의 임직원 모두가 조직의 성장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더 멋진 조직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노재기 청주저축은행 대표**  
**“작은 일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한 해 되길”**

한 해를 보내며 흔히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을 쓰는데 2018년을 돌아볼 때 다사다난보다 적합한 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

청주저축은행에서는 지난해 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한 바 있다. 새로운 부서에 배정받아 새로운 업무를 익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의 일만 잘할 수 있게 될 뿐 금융업무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개인의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역량을 위축시킨다.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우리가 각자의 일에서 안정을 이루고 역량을 심화한다면 필연적으로 조직의 성장이 뒤따를 것이다. 그것은 2018년의 다사다난을 2019년의 안정 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와 함께 2019년은 모두에게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는 인사가 너무 상투적이 된 지금 즐거움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만약 어떤 것이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

요즘 많은 이들이 ‘올로(YOLO : You Only Live Once)’



노재기 청주저축은행 대표

**즐거움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행복이 일상의 엄연함과 충돌하지 않기를,**  
**행복과 일상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를 기치로 내걸며 현재의 행복에 충실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아무쪼록 현재의 행복이 일상의 엄연함과 충돌하지 않기를, 행복과 일상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한 해 두 해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이라든가 우정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얼마 전 음주 운전으로 인해 희생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이뤄내는 것을 보며 강한 인상을 받았다. 친구의 억울한 죽음 앞에 침묵하지 않고 친구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우정에 감동했다. 또 자녀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만 봐도 기쁨 비슷한 행복을 느끼곤 한다. 직원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줄 때면 1주일 치 비타민을 채운 것 같은 즐거움을 얻는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한 해,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2019년이 되기를 바란다.☺